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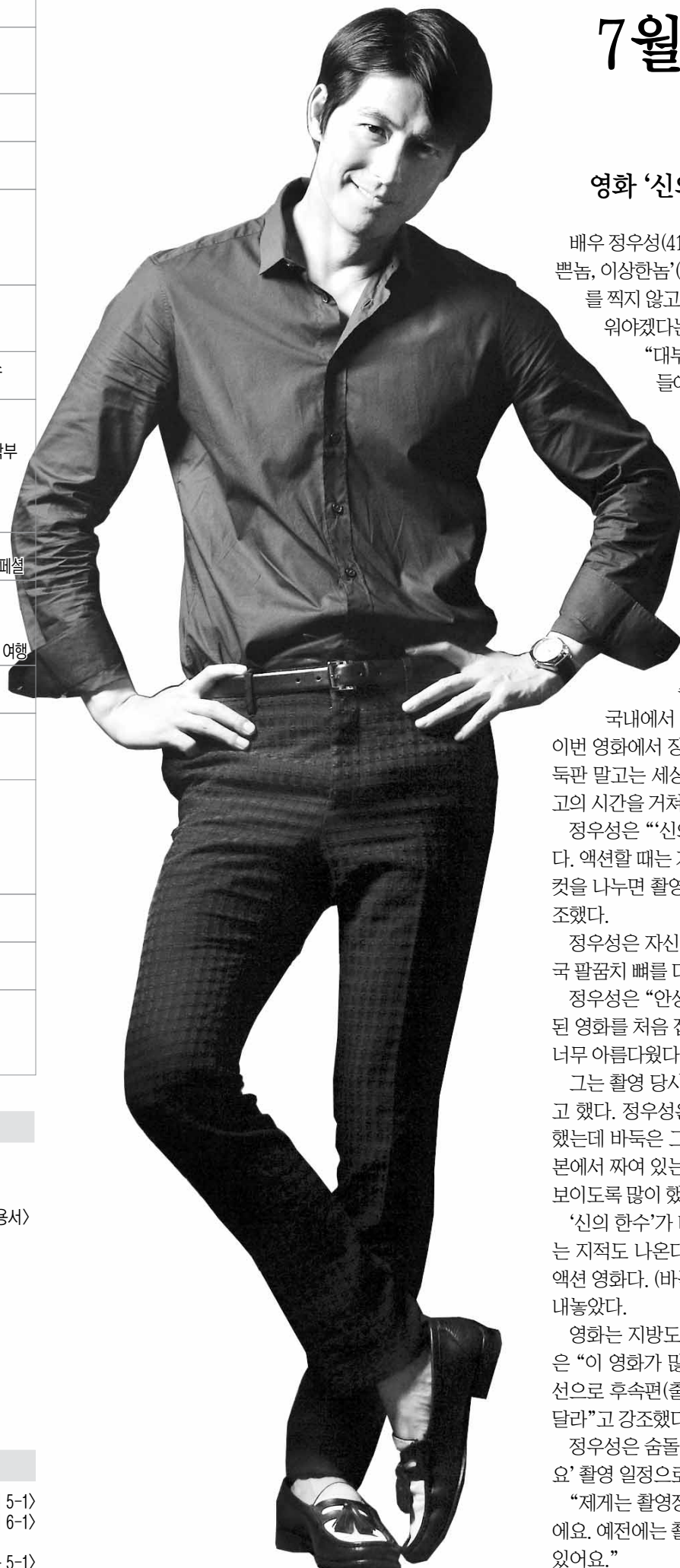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program name and time slots.

EBS플러스1 and EBS플러스2 schedule tables with columns for program name and time slot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columns for zodiac signs and horoscope text.

“촬영장이 가장 행복 7월의 남자 되고파”



영화 ‘신의 한수’ 주인공 정우성

배우 정우성(41)은 한동안 목이 말라 있었다고 했다. 영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2008) 이후 한동안 대중에게 뚜렷이 각인될 만한 영화를 찍지 않고 보낸 시간이 4~5년 지났을 때였다. 공백을 제대로 채워야겠다는 욕구가 커진 정우성에게 1순위는 액션 영화였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이야기와 구조를 재생산하는 액션영화들에 출연하기는 그랬어요. 그때 ‘신의 한수’를 만났죠.” ‘신의 한수’는 바둑판을 배경으로 날복수극이다. 정우성은 형을 잃은 것도 모자라 살해 누명까지 쓰게 되면서 복수에 목숨을 거는 전직 프로 바둑기사 태석을 맡았다. ‘신의 한수’가 개봉 첫날부터 외화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를 눌렀다는 소식이 전해진 4일 오후 정우성을 서울 종로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로복군단을 무찌른 ‘신의 한수’ 경쟁력은 무엇일까. 정우성은 “쉽게 볼 수 있는 오락액션 영화라는 점이 강점인 것 같다. 맥주를 마시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액션을 가장 잘하는 배우 중 하나로 꼽히는 정우성은 이번 영화에서 장기를 잘 발휘했다. 답수룩한 머리 아래 뿔테 안경, 바둑판 말고는 세상사에 어두웠던 무력한 프로 바둑기사였던 태석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선보이는 액션들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정우성은 “‘신의 한수’에 담은 액션은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한다. 액션할 때는 가혹하게 몰아가야 한다. 요즘 촬영기술이 좋아졌다고 컷을 나누면 촬영기술만 보이지, 진짜 땀 냄새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우성은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간 탓에 냉동창고 액션 장면에서 결국 팔꿈치 뼈를 다쳤다. 정우성은 “안성기 선배님처럼 같이 연기하는 게 좋았다”면서 “원성된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주님이 뎡기(盲棋·암흑바둑)를 두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그는 촬영 당시 ‘작수’(바둑판에 돌을 놓다)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다. 정우성은 “영화 들어가기 전 프로 9단을 모시고 배워보려고 했는데 바둑은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바둑은大本에서 짜여 있는 수를 찾아가면 되니 작수 연습을 프로 바둑기사처럼 보이도록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신의 한수’가 바둑을 소재로 했음에도 바둑보다는 액션이 강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우성은 이에 “‘신의 한수’는 바둑 영화가 아니라 액션 영화다. (바둑을 보려면) 바둑 TV를 보셔야 한다”며 껌껌한 답을 내놓았다. 영화는 지방도시를 배경으로 속편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정우성은 “이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아서 후속편이 만들어진다던 당연히 우선으로 후속편(출연)을 검토하겠다”면서 “저를 ‘7월의 남자’로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정우성은 숨돌릴 틈도 없이 영화 ‘마담 뱅딕’에 이어 ‘나를 잊지 말아요’ 촬영 일정으로 바쁜 모습이었다. “제게는 촬영장이 가장 행복한 공간이고 가장 잘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전에는 촬영장에서 노는 방법을 몰랐는데 지금은 신나게 놀 수 있어요.”

영화계 유인원 급수에 대한 환란

‘혹성탈출’ 초기 개봉에 영화제작자협회 반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이하 혹성탈출)이 애초 예정했던 개봉일을 앞당기자 영화계가 환란에 빠졌다. 개봉과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상영관을 점유할 것이 확실시되는 대작의 개봉 계획이 수정되면서 비슷한 시기 개봉하는 영화들이 잇달아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혹성탈출’은 애초 16일에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4일 개봉일을 10일로 앞당겼다. 이렇게 되자 ‘혹성탈출’을 피해서 한 주 앞선 10일 개봉 계획을 세웠던 영화들은 폭격을 맞은 상황이 됐다. 상영 스크린수가 축소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장 상영관을 잡는 것은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혹성탈출’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화들에는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영화제작자협회(이하 제협)가 영화계를 대표해 이날 성명을 내고 ‘혹성탈출’의 변칙개봉 중단을 촉구했다. 제협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급작스런 개봉변경은 영화계의 상도의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영화시장의 기본질서를 크게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받을 피해는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제협에 앞서 10일 개봉 예정인 외화 ‘사보타지’의 수입사 매인타이틀픽처스의 이창원 대표도 성명을 내고 ‘혹성탈출’의 처사를 비난했다. 지상, 주지훈, 이광수가 주연을 맡은 한국영화 ‘좋은 친구들’ 역시 10일 개봉 예정이라 ‘혹성탈출’의 유탄을 맞게 됐다. 또 지난 3일 개봉한 정우성, 이범수 주연의 ‘신의 한수’ 역시 ‘혹성탈출’과 2주의 거리를 두겠다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되는 등 많은 영화들이 ‘혹성탈출’ 개봉일 변경의 영향을 받게 됐다. 한편, ‘혹성탈출’의 국내 홍보사 올댓시네마는 “CG 작업이 많은 영화라 개봉일을 16일로 잡았던 것인데 심의가 생각보다 이른 지난 3일에 나와서 개봉일을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손담비, KBS 주말극 ‘가족끼리 왜이래’ 출연



가수 겸 배우 손담비(31)가 KBS 2TV 새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이래’에 출연한다. 3일 소속사 플레디스에 따르면 손담비는 이 드라마에서 우아하고 지적인 푸드 스타일리스트 권희진을 연기한다. 권희진은 극중 차강심(김현주 분)의 남동생 차경재(윤박)의 아내로, 병원장 딸로 어려움을 모르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엄마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이다. 이 드라마로 2년여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손담비는 “오랜만에 하는 작품이어서 긴장되지만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끼리 왜이래’는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아빠가 이기적인 자식들을 개조하기 위해 교육자책으로 ‘불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그려진다. ‘참 좋은 시절’ 후속으로 다음달 16일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